

‘일인칭 복수’(FIRST PERSON PLURAL) 프로그램 줄거리

‘일인칭 복수’ 프로그램 줄거리

디안 볼셰이(Deann Borshay)는 1960년대 미국 가정에 입양되어 양육된 수천 명의 한국 고아 중 한 사람이었다. ‘일인칭 복수’는 자신의 뒤바뀐 아이덴티티를 바로잡고 입양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파헤쳐가는 그녀의 고뇌의 세월을 담은 개인 다큐멘터리이다.

전형적인 미국인 부부 아놀드와 앨빈 볼셰이(Arnold and Alveen Borshay)는 어느 날 오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국의 참상을 접하게 되었다. 곤경에 처한 고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이들은 수양부모플랜(Foster Parent's Plan)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일가친척 없이 한국의 한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어린 여자아이 차정희의 후원자가 되었다. 2년 동안 차정희에게 매달 15달러씩을 보내며 편지를 쓰던 볼셰이 부부는 마침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1966년 3월 3일, 그들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새 딸을 맞이해 디안(Deann)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미국에 와 볼셰이 가정의 새 식구가 된 그녀는 한국 가정의 추억을 잊지 않고 간직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입양서류에 적힌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 볼셰이는 자신이 고아이며 친부모는 죽었고 다른 생존가족도 전혀 없다고 들었다. 그녀의 양부모도 똑같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실제 기억과 입양서류에 적힌 “사실” 간에 혼란이 너무 심하자 볼셰이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말았다. 한국말 하는 법, 가족에 대한 기억,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대신 그녀의 어린시절은 철저한 미국화의 과정이 되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최초의 콜라 시음, 최초의 부활절 계란 찾기, 최초의 헬로윈, 치어리더가 되던 과정, 고등학교 때 학년대표와 호움 커밍 퀸으로 뽑힌 일 등 모든 중요한 순간을 홈 비디오에 담아두었다.

그 뒤로 삶이 우울해지면서 아스라한 악몽이 이어지자 볼셰이는 자신의 입양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의혹을 품게 되었다. 집요하게 되살아나는 한국의 기억 때문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입양서류를 조사하게 되었다.

모든 서류상에는 그녀가 과연 생존가족 없는 고아 차정희로 돼있었다. 볼셰이는 그런 결과에 처음에는 낙심했다. 그러다 그녀는 옛 편지뭉치에 끼어있는 빛바랜 작은 2장의 사진을 찾아냈다. 두 명의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다. 한 장은 자신의 모습 같았으나 다른 사진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두 아이 모두 차정희로 돼있었다. 볼셰이는 그 즉시 자신의 의혹에 일리가 있음을 깨닫고 고아원으로 편지를 썼다.

그녀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동생 옥진에게”라고 적힌 답장을 받았다. 볼셰이는 자신의 본명이

강옥진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같은 고아원에 살던 차정희라는 다른 아이로 막판에 둔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딴 사람으로 바뀌어있다는 사실 외에도 불쉐이는 자신의 친 가족—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여태 한국에 엄연히 살아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친 가족과 자신의 참 아이덴티티의 발견으로 많은 수수께끼가 풀리기는 했지만 불쉐이에게는 입양가족과 친 가족 사이에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이질적인 부분들을 통합하는 법 등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다.

1988년 봄, 불쉐이는 자신의 이력에 대해 늘 찝찝하던 의문을 풀고자 양부모와 함께 한국에 간다. 결국 양 가족은 격한 감정으로 처음 만나 새로운 세계에 눈뜨게 된다. 엄청난 문화적 장벽을 확인해준 이 사건을 통해 불쉐이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첫 단계는 이미 잃었던 과거를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라는 씁쓸한 사실을 깨닫는다.

한국 고아원의 문서 촬영, 8mm 홈 비디오, 양가의 첫 대면을 담은 감동적 장면을 모아 만든 ‘일인칭 복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족, 문화, 언어와 양쪽으로 나누이는 자신의 마음을 삶에 통합하려 한 한 여인의 몸부림의 사연이다. 이 영화는 역설을 안고 사는 삶, 때로 알곳은 장난 같은 사랑과 가정이라는 영역의 순례에 대한 인간보편의 이야기이다.

동화(同化)의 위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주해인 ‘일인칭 복수’는 한 가정에 대입된 “용광로”(melting pot) 이론의 특이한 탐구이기도 하다. 불쉐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미국에서는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임임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런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일인칭 복수’는 미국인이 되어가는 기회와 그에 따른 희생, 진정 지울 수 없는 한 인간의 과거의 영원한 유산이 잘 표현된 영화이다.